

조사 독립성 논란 속 제주항공 참사 공청회 파행 우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오는 4일과 5일 '12·29 제주항공 참사' 조사 경과를 공개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지만,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세진 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가족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현재까지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주요 사실관계와 기술적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4일과 5일 이남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고조사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덕(좌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날 26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을 시도하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일방적 공청회 진행 중단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항의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공청회는 ▲조류 ▲방위각시설·둔덕 ▲기체·엔진 ▲운항 등 총 4개 주제별로 2시간 사조위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적인 의견수렴 목적이 아닌, 사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 절차로 사실관계 확인, 기술적 검증,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발표자료에서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분석 자료 등 사고조사와 직접 관련된 핵심 근거들을 최대한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족은 현재 국토부 산하인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전환해 독립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발표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사조위 4~5일 공청회 예정...조류·둔덕 등 4개 주제 발표

유가족, 사조위의 역량 부족·독립성 지적하며 거센 반발

김윤덕 장관 "유가족 반대 있다면 정상진행 어려울 수도"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가 조류와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한차례 있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공청회를 이후 최종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토부가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기 전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전날 "사조위의 공청회 추진과 관련해 유가족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가 독립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유가족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청회도 4개의 세션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데 유가족에 반대가 있다면 정상진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가 조류와 조종사 과실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한차례 있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공청회를 이후 최종보고서까지 제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토부가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기 전 졸속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전날 "사조위의 공청회 추진과 관련해 유가족의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가 독립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유가족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청회도 4개의 세션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인데 유가족에 반대가 있다면 정상진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폴리 '광주천 도서관과 '무등의 빛'.

'떨어지고 녹슬고...' 광주폴리 관리 부실 도마 위

광주천 도서관, 상부 목재 구조물 낙하...전면 철거 기로

무등의 빛, 폭우로 조명 꺼진 채 운영...홈페이지도 소홀

광주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2011년부터 도심 곳곳에 설치한 광주폴리(Gwangju Folly) 작품들이 낙하 사고와 부식현상 등 홈페이지 관리 소홀까지 겹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 도시공간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폴리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임미란(남구2) 의원은 "광주천 도서관" 작품은 아찔한 낙하사고를 겪었고, 광주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설치된 '무등의 빛'은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라며 "32개 전체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친 뒤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따져 전면 또는 부분 철거할 지, 유지할 지를 결정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광주천 도서관'은 미국 소설가와 영국 건축가가 한국의 전통정자 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광주천 양양교 인근에 설치한 작품으로, 상부 목재구조물 낙하사고 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 철거하는 게 낫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무등의 빛'은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과 건축가 김민국이 협업해 호남고속도로

광주폴리 상단에 설치한 가로 74m, 세로 8m 크기의 작품으로, 무등산 조형물 형태로 광주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랜드마크지만 지난 7월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다.

임 의원은 또 "광주폴리 전체 유지관리비로 2022년 3억 원, 2023년 5억 원, 2024년 2억 원, 올해 2억2000만 원 등 매년 수억원의 예산이 반복 투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1억3000만 원 증액된 3억40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라며 "재정 효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수훈(서구1) 의원은 "광주폴리 홈페이지 내 자료 사진은 2021년 업로드한 게 마지막이고, 영상은 2024년 11월이 마지막"이라며 "기능이 미흡하고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낙하사고 등으로 문제가 된 작품은 작가와의 논의를 거쳐 전면 철거할 지, 부분 철거할 지 논의할 예정이고, 홈페이지 관리와 시민 불편도 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전남교육청, '민주·헌법 가치 회복' 기념 교육주간 운영해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우리 사회가 헌정질서를 회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12월 중 2주간을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으로 운영하고, 도내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주간은 지난 '12.3 비상계엄'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학생의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절차의 의미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급 학교에서는 지난 3월 전남교육청에서 개발한 초·중등용 '민주적 가치 수호를 위한 헌법·계엄 역사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자료에는 기본권, 권력분립과 견제, 법치주의, 비상 상황의 헌법적 통제, 역사적 계엄 사례의 교훈 등 학생들

이 민주적 시민성의 기초를 익힐 수 있는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관련하여 해당 장면을 학생들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의 시청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회복하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10월~12월에는 법무부와 교육부와 함께 초·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헌법교육을 16회 실시해 학생들의 헌법 이해도와 민주적 역량을 높이는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며 "이번에 운영될 '민주적 가치 질서 회복 기념 교육주간'을 통해 학생들이 법의 의미와 민주적 절차의 소중함을 스스로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신안 여객선 좌초 선장, 구속영장 심사 출석

위험구간 지휘 의무...사고 당시 조타실 비워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한 대형 여객선 퀴제누비아2호 선장 A(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진행됐다.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전 변호사와 함께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했다.

A씨는 "왜 자리를 비웠나", "운항 1000회가 넘게 조타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도 A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인근 해상 협수료에서 위험구간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퀴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죽도에 좌초, 승선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취항한 퀴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 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협수로 등 위험구간에서 선장이 직접 선박 조종을 지휘할 의무가 있지만, 사고해역에 진입했을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장실에서 쉬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휴대전화로 보다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일등항해사 B(40세)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41)씨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해경은 좌초 당시 사고해역 관계 업무를 담당할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광주경찰청, 청소년 조직 범죄 우려에 기동대 투입 순찰 강화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제기된 지역 청소년들의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순찰 강화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3일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근린공원 일대에서 기동대를 투입한 순찰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첨단2지구 근린공원 일대에서는 최근 중학생들이 무리를 이뤄 집단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SNS상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일선서를 통해 사건 접수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미연의 상황을 막고자 공원 일대에 기동순찰대 1~2개팀을 투입, 주변 학교의 하교시간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순찰 강화는 SNS상에서 제기된 학생들의 집단 폭행 등 만일의 범죄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학원 수업 종료 시간 집중 순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